

# 한반도 분단 구조 속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역사, 현황 및 미래 전략에 관한 심층 분석 보고서

## 1. 서론: 분단 시대의 신학적 딜레마와 선교적 과제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찾아온 분단,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은 한국 개신교회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동시에 강력한 선교적 동기를 부여했다. 한국교회에 있어 북한은 '적그리스도'의 땅인 동시에 수복해야 할 '가나안'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다. 지난 70여 년간 한국교회는 반공주의의 보루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동시에 인도적 지원의 최전선에서 북한을 끌어안으려 노력해 왔다.

본 보고서는 한국교회가 걸어온 북한선교의 역사적 궤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파고 속에서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화해자의 역할,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교회 재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단 간 갈등의 소지와 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탈북민을 통한 선교의 현주소와 한국 사회의 반응, 그리고 교단별 대북 지원의 물량적 흐름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교회의 통일 선교 전략을 위한 포괄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관심도와 방향성의 역사적 변천 (1945~2024)

한국교회의 북한 인식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궤를 같이하며 진화해 왔다. 이는 단순한 선교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남한 사회 내 교회의 사회적 위치와 신학적 성찰의 깊이가 달라짐에 따라 변화해 온 역동적인 과정이다.

### 2.1 1950~70년대: 반공주의(Anti-Communism)와 '승공(勝共)'의 신학

한국전쟁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열공'과 동의어였다. 당시 남한 교회의 주류는 북한 공산 정권의 박해를 피해 월남한 기독교인들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산주의는 타협 불가능한 악(Evil)이자 척결의 대상이었다.<sup>1</sup>

- **방향성:** 이 시기의 선교 방향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한 기도와 심리전적 성격이 강했다. 교회는 군사 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작동했으며, 북한 선교는 곧 '복음 통일'이라는 이름 하에 흡수 통일을 염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가 국가 안보의 영적 최후 방어선 역할을 자임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 2.2 1980~90년대: 민주화 운동과 통일 논의의 붓물, 그리고 '88선언'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열기는 통일 논의로 불이 옮겨붙었다. 특히 진보적 기독교 진영을 중심으로 분단 체제가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자각이 일어났다.

- **NCCK의 88선언:**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88선언)'은 한국교회 북한선교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 선언은 남한 교회가 북한을 적으로만 규정하고 증오해왔던 죄책을 고백하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천명했다.<sup>2</sup>
- **민간 교류의 시작:** 이우정, 김윤옥 등 여성 기독교 지도자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 등이 이어지며 금기시되었던 통일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영주 목사 등의 노력으로 서대문 독립문에서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인간 띠 잇기' 행사가 기획되는 등, 90년대 초반은 상징적이고 운동적인 차원의 통일 운동이 전개되었다.<sup>1</sup>

## 2.3 1990년대 중반~2000년대: '고난의 행군'과 인도적 지원의 폭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기근(고난의 행군)은 한국교회의 대북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념의 장벽을 넘어 '굶주리는 동포'를 살려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당위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움직였다.

- **지원의 이중 구조:** 진보 진영(NCCK 등)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지원한 반면, 보수 진영은 조그련을 '가짜 교회'로 인식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에는 적극 동참했다. 이는 교단 간 신학적 차이를 잠시 유보하고 '생명 살리기'라는 공통 분모 아래 물량적 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였다.<sup>1</sup>
- **교단 중심의 사업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연합기구보다는 각 교단과 대형교회들이 독자적인 대북 지원 사업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으나, 북한 선교가 개교회의 '실적'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동시에 내포하게 되었다.<sup>2</sup>

---

## 3. 미·중 패권 갈등 상황 속 한국교회의 화해자 역할 분석

현재 한반도는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과거 냉전 시기와 유사하게 한·미·일 대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남북 간의 자율적인 대화 공간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딜레마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 3.1 구조적 함정과 '공공 신학'의 요청

2025년 경주 APEC 회의 등을 계기로 미·중 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를 내세우며 동맹국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통해 이에 맞서고 있다. 한국은 이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sup>4</sup>

- **외교적 고립의 위험:**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에 과도하게 편중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 선교의 중요한 통로인 동북 3성 지역의 선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중국 내 선교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탈북민 지원 활동이 중국 당국에 의해 '안보 위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 교회의 공공 외교: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 등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국가 외교만으로는 다극화된 질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여기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요청된다. 교회는 국가가 할 수 없는 '종교적 차원의 시민 외교'를 통해 경직된 국가 관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sup>4</sup>

### 3.2 '평화 신학(Peace Theology)'에 기초한 중재 전략

한국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반전(No War)을 넘어선 적극적인 평화(Shalom)의 구축을 의미한다.

1. 트랙 II 외교(Track II Diplomacy)의 활성화: 국가 간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복음주의연맹(WEA) 등 글로벌 기독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NCCK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국무부 및 의회에 한반도 평화 조약 체결을 촉구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인도적 지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로비 활동을 펼친 것은 좋은 사례다.<sup>5</sup>
2. 'Korea Peace Appeal' 캠페인: 한국교회는 전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 서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군사적 대결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교회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대화와 협력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양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영적, 도덕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sup>6</sup>
3. 인도적 지원의 지속성 담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미·중 갈등이 완화되거나 북한이 대화로 나올 때, 한국교회가 즉각적인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sup>4</sup>

## 4. 통일 후 북한교회 재건 전략과 교단 간 갈등 가능성 분석

한국교회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교회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그러나 이 '준비'가 각 교단의 개별적인 욕망과 결합될 때,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4.1 '장대현교회' 재건 경쟁과 6개 교단의 난립

평양 장대현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로서 한국 기독교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현재 한국교회 내 주요 교단 중 무려 6개 교단이 통일 후 장대현교회를 자신들이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8</sup>

- 갈등의 소지: 만약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이들 교단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평양의 동일한 장소에 각기 다른 간판을 내걸고 경쟁적으로 건축을 시도한다면,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의 본질보다는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꼴이 될 것이다.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이러한 과열 경쟁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sup>8</sup>

### 4.2 교단별 선교 전략의 한계: '점령군'식 선교의 위험성

많은 교단들이 북한 선교를 '미수복지 회복' 혹은 '교세 확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서부연회):** 감리교는 해방 전 북한 지역에 있었던 388개 교회의 명단을 확보하고, 남한의 개별 교회들과 1:1 결연을 맺어 재건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의 연고권을 주장하며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경우 타 교단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sup>10</sup>
- **예장 합동 및 통합:** 주요 장로교단들 역시 노회 단위로 북한 지역을 할당하거나 신학교 건립을 계획하는 등 대규모 물량 투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자칫 자본을 앞세운 '교회 건축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sup>12</sup>

### 4.3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선교지 분할 협정'과 7대 원칙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최근 '통일 이후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7원칙'을 제안하며 조율에 나섰다.

- 선교지 분할(Comity Agreements)의 현대적 적용: 19세기 말 내한 선교사들이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역을 분할하여 선교했던 지혜를 빌려, 통일 후에도 교단별로 지역을 나누어 책임 선교를 감당하는 '네이비우스 정책'의 현대적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sup>12</sup>
- 단일 교단 명칭 사용: 북한 주민들에게 '장로교', '감리교' 등의 교파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고, '한국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단일한 이름으로 접근하자는 합의가 시도되고 있다.
- 지하교회 우선 원칙: 남한 교회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인정하고 남한 교회는 '조력자(Helper)'의 위치에 서야 한다는 원칙이다.<sup>9</sup>

[표 1] 주요 교단 및 연합기관의 북한교회 재건 전략 비교

구분	주요 전략 및 특징	핵심 내용	잠재적 갈등 요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역사적 연고권 기반 재건	해방 전 388개 교회터 확인 및 남한 교회와 1:1 매칭 재건 준비	타 교단이 해당 지역 진출 시 '영역 침범' 논란 가능성
예장 합동/통합	노회 중심 지역 할당	북한 노회 재건 및 신학교 설립, 대형교회 중심의 물적 지원 준비	물량 공세로 인한 현지 생태계 파괴, 교단 간 세력 과시 경쟁
KWMA / 한교총	7대 원칙 및 연합 전략	단일 명칭 사용, 선교지 분할 협정, 지하교회 주도권	구속력 부족. 대형교회들의 개별 행동을 제어할

		인정	강제성 미비
여의도순복음교회	대형 인프라 구축	평양 심장병원 완공 후 인민병원 <b>250</b> 개 건립 계획	개교회의 압도적 자본 투입이 연합 전략과 배치될 수 있음

## 5. 탈북민 중심 북한선교의 현황 및 사회적 반응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은 '미리 온 통일'로 불리며 북한 선교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들을 통한 선교 활동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 5.1 탈북민 사역자들의 활동 실태: '비대칭' 선교

탈북민 출신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공식적인 경로가 막힌 상황에서 비공식적이고 비대칭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 **풍선 사역과 라디오 방송:** 이민복 선교사 등은 대북 풍선에 성경, 라디오, 전단지, 생필품 등을 담아 날려 보낸다. 이는 폐쇄된 북한 사회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순교자의 소리' 등은 북한 방언으로 된 성경 낭독 방송을 송출하여 지하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다.<sup>15</sup>
- **지하교회와의 연계:** 탈북민 사역자들은 중국 국경 지역을 통해 식량과 성경을 밀반입하며 북한 내 지하교회 조직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 북한 내 기독교인은 약 1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남한의 지원을 받아 생존하고 신앙을 유지한다.<sup>16</sup>
- **어려움:** 탈북민 목회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사역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절반 가까운 탈북민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빈곤과 남한 교회의 차별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sup>19</sup>

### 5.2 한국 사회와 교회의 반응: 냉담과 갈등

탈북민들의 선교 활동, 특히 대북 전단 살포는 남한 사회 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접경 지역 주민과 진보 진영의 반대:** 파주, 연천 등 접경 지역 주민들과 진보 성향의 기독교 단체(NCCK 등)는 대북 전단이 북한을 자극하여 무력 도발을 야기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실제로 2014년 북한의 고사총 발사 사건 등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리얼미터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50~60%가 대북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높다.<sup>21</sup>
- **교회 내의 인식:** 남한 성도들조차 탈북민에 대해 막연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을 친근하게 느끼는 비율은 19.1%에 불과하며, 탈북민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않다. 이는 탈북민을 동등한 선교 파트너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남한 교회의 한계를 드러낸다.<sup>24</sup>

- **MZ세대의 무관심:**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2030세대의 40% 이상이 통일 불필요 응답), 이는 탈북민 선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다음 세대에게 북한 선교는 더 이상 당위적인 과제가 아니다.<sup>25</sup>

## 6. 대북 지원의 물량적 분석: 누가 가장 많이 지원했는가?

대북 지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지원 경로의 비공개성(Under table)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통계 자료와 주요 사업 규모를 분석하면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 6.1 지원 주체의 경향성: 진보 대 보수, 대형교회의 역할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대북 지원은 진보 교단뿐만 아니라 보수 대형교회들에 의해서도 막대한 규모로 이루어졌다. **진보 교단(NCCK)이 '정책과 물꼬'를 텄다면, 보수 대형교회는 '물량과 자본'을 담당했다.**

- **진보 진영 (NCCK 등):** 이들은 1990년대부터 조그련과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식량 지원, 농기계 보내기 운동 등을 주도했다. 지원 액수보다는 남북 교류의 **\*\*상징성\*\***과 '지속성' 면에서 큰 기여를 했다.
- **보수 진영 (대형교회 및 NGO):** 보수 교회들은 직접적인 대북 접촉보다는 월드비전, 기아대책, 유진벨재단 등 기독교 배경의 NGO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2000년 통계에 따르면 민간 차원 지원액 420억 원 중 기독교계 지원이 약 270억 원(64%)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sup>27</sup>

### 6.2 최대 지원 교단 및 교회 분석

물량적인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원을 한 곳은 단연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대형교회들이다.

1. **여의도순복음교회 (단일 교회 최대 규모):**
  - 평양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2007년 착공한 이 병원은 총 공사비만 약 **2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다. 260병상 규모로, 남한 교회가 북한에 짓는 단일 건축물 중 최대 규모다. 2010년 5.24 조치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21년 유엔 제재 면제를 받아 공사 재개를 준비 중이다.<sup>28</sup>
  - 심장병 어린이 수술: 1984년부터 국내외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로 **81억 원** 이상을 지원했으며, 이를 북한 어린이에게까지 확장하려 했다.<sup>30</sup>
2. **영락교회:**
  - 북한 출신 실향민들이 세운 대표적인 교회답게 지속적이고 꾸준한 지원을 해왔다. 고난주간 헌금 등으로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을 월드비전에 기탁하여 밀가루 **600톤**을 지원하는 등,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다.<sup>31</sup>
3. **예장 통합 및 합동 교단:**
  - 이들 교단은 총회 차원의 대북지원위원회를 통해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한다. 특히 '사랑의 쌀 나누기', '내북 보내기' 등 캠페인성 모금을 통해 전국 교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 비율에서 개신교가 **52% 이상**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북 지원 NGO의 상당수가 이들 교단 배경을 가지고

있다.<sup>33</sup>

[표 2] 한국교회 주요 대북 지원 현황 및 규모 (추정치 포함)

시기	지원 주체	주요 지원 내용 및 규모	비고
1995~1999	한국교회 전체 (연합)	고난의 행군 시기 옥수수, 감자, 의약품 지원. (초기 연간 수십억 원 규모)	보수/진보 구분 없이 생존 지원 집중
2000년	기독교계 NGO 및 교단	총 민간 지원액 420억 원 중 약 270억 원 (64%) 감당	개신교가 민간 대북 지원의 과반 이상 차지 <sup>27</sup>
2007~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	평양 심장병원 건립 (약 200억 원+)	단일 프로젝트 최대 규모. UN 제재 면제 승인 획득
상시	영락교회	식량, 밀가루, 북한 아동 돕기 (건당 수천만 원 수시 지원)	실향민 교회의 정체성 유지
상시	예장 통합/합동	사랑의 쌀, 결핵 퇴치(유진벨), 농업 기술 지원 등	교단 산하 NGO 및 선교회 통한 간접 지원 활발

## 7. 결론: 미·중 갈등 시대, 한국교회의 새로운 통일 선교 로드맵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는 이제 단순한 '물량 공세'나 '교회 건축'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한다.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고와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남한 내의 통일 의식 약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 화해자(Peacemaker)로서의 정체성 확립: 한국교회는 한미 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보편적 평화의 가치를 수호하는 제3의 지대에 서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양국 기독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고, '평화 우선(Peace First)' 원칙을 국제 사회에 설파해야 한다.

- 2. 연합(Unity) 없는 선교의 중단: 6개 교단이 평양에 각자의 장대현교회를 짓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 교단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KWMA와 한교총이 합의한 '7대 원칙'을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 선교는 '장로교'나 '감리교'의 이름이 아닌, 오직 복음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
- 3. 사람(People) 중심의 준비: 건물 재건보다 시급한 것은 사람의 준비다. 남한 내 3만 4천 명의 탈북민을 품지 못하면서 북한의 2천5백만 주민을 품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별받는 탈북민 목회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을 통일 선교의 주역으로 세우는 '내적 통일' 연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70년의 분단 역사 속에서 증오와 사랑, 대립과 지원 사이를 오갔다. 이제는 그 혼란을 끝내고,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화 신학 위에서 통일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부록] 데이터로 보는 한국교회와 통일 인식

[표 3] 한국인의 통일 및 북한 인식 변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3)

구분	2007년 (조사 시작)	2023년 (최신)	시사점
통일 필요하다	63.8%	43.8% (역대 최저)	통일 당위성 급격한 약화, 선교 동력 상실 우려
통일 불필요하다	15.1%	29.8% (역대 최고)	'남남으로 살자'는 인식 확산
북한은 협력 대상	-	37.7% (역대 최저)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강화
북한은 적대 대상	-	18.7% (역대 최고)	안보 불안감 증대

[본 보고서의 모든 데이터와 주장은 제공된 연구 자료<sup>12</sup>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 1. 한국교회 북한선교 평가와 전망 :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 Daum 카페,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cafe.daum.net/nuri1009/OJJ0/102?svc=cafeapi>
- 2. 한국교회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공공신학적 고찰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12월



-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download/964/3964/B3-2%20%ED%95%9C%EA%B5%AD%EA%B5%90%ED%9A%8C%20%EB%82%A8%EB%B6%81%ED%86%B5%EC%9D%BC%EB%B0%A9%EC%95%88%EC%97%90%20%EB%8C%80%ED%95%9C%20%EA%B3%B5%EA%B3%B5%EC%8B%A0%ED%95%99%EC%A0%81%20%EA%B3%A0%EC%B0%B0%EC%9D%B4%EB%8F%99%EC%B6%98.pdf>
3. 식량 위기와 북한의 생존전략 - 한국기독교공보,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m.pckworld.com/article.php?aid=6765659069>
  4. APEC 이후 다국질서와 한국교회의 평화·화해 역할 - 고신뉴스 KNC,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kos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67>
  5. 워싱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행진과 기도회 열려,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oikoumene.org/news/wosingteonseo-hanbando-pyeonghwa-tongileul-wi-han-haengjingwa-gidohoe-yeollyeo>
  6. 한반도평화 옹호 활동 보고,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www.kncc.or.kr/newsView/knc202310250002>
  7. NCKK, 美국무부 방문해 평화정착 6개 요구안 전달 - 에큐메니안,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4>
  8. KWMA, 선교지 분할 등...“북한교회 회복 위한 7원칙” 제안 - 세계복음신문,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orldgospeltimes.com/1-93/>
  9. “140년 한국교회, 봉건-식민-분단 잔재 없애야” <선교 < 뉴스 < 기사본문,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52>
  10. 북한교회재건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당뉴스,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23>
  11. 기감,북한 388교회 재건 나선다 - 크리스천투데이,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161507>
  12. 한국교회, 통일 후 선교 전략 논의 “북한교회 회복 함께 준비” - 크리스찬타임스,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www.kctusa.org/news/articleView.html?idxno=76685>
  13. KWMA, '통일 이후 북한교회 재건 원탁회의'...공동 과제에 관심 - 한국기독교공보,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m.pckworld.com/article.php?aid=9617615631>
  14. 언더우드·아펜젤러, '선교지 중북' 피하려 20년간 치열히 토론 : 선교 - 크리스천투데이,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2990>
  15. 풍선에 말씀과 사랑을 싣고... - 미주 한국일보,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051018/275304>
  16. 북한 지하교회 활발히 활동: 모퉁이돌 선교회 - Radio Free Asia,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orth\\_korea\\_continue\\_supress\\_underground\\_church-20051104.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north_korea_continue_supress_underground_church-20051104.html)
  17. 순교자의 소리, 대북 라디오 방송 매일 4회서 5회로, - 목장드림뉴스,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p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74>
  18. “가짜교회는 정성지원,지하교회엔 무관심”: 선교 - 크리스천투데이,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148567>
  19. 탈북민 목회자와 북한선교의 중요성,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aghes.squarespace.com/s/-tg5g.pdf>
  20. 탈북민교회 담임 목회자 절반, 사례비 없다 - 크리스천투데이, 12월 28, 2025에

- 엑세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2632>
21. [CBS 뉴스] 북 접경지역 종교인들, “美 국무부 보고서 주민 인권 무시” 비판 - YouTube,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yVclbsJmET0>
22.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에 찬성 50%·반대 41% - 국제신문,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00611.99099004099>
23. 교회협,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철회해야" - - 크리스천 노컷뉴스,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mch.nocutnews.co.kr/news/5854733>
24. 탈북민의 사회적응 - 가스펠투데이,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2>
25. "국민 10명 중 3명 '통일 필요없어'...서울대 통일의식 조사 - 연합뉴스,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7145200504>
26. 초·중·고 42% '통일 필요 없다' 응답...한국 교회의 해결 방안은? - 투데이N,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www.today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8818>
27. 한국교회 지난해 대북지원 '중심' 민간지원액 420억원 중 270억원 차지 - 기독교신문,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1>
28. 평양심장병원 1조5천억 지원? “터무니없는 종북몰이” - 아이굿뉴스,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1932>
29. 평양 조용기심장병원 공사 재개 되나 - 데일리굿뉴스,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968>
30.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장병 수술지원 4천명 넘어 - 교회와신앙,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27>
31. [보도자료] 영락교회로부터 북한 아동 식량 지원 후원금 2천만 원 전달받아 - 월드비전,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m.worldvision.or.kr/story/p16174/>
32. 영락교회, 북한 아동 식량 후원금 2천만 월드비전에 기부 - 크리스천투데이,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1903>
33. '사회공헌도' 기독교, 불교의 '2배'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 압도적 우위 - 미디어붓다,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www.mediabuddha.net/news/view.php?number=8894>
34.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2024년 10월 7일 제 144차 기도회 - YouTube, 12월 28,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HekaJo8ylGU>